**5. 지옥, 법칙과 구속**

·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?

· 기독교 주장의 핵심

**[] 부재absence 반대와 실재existence 반대**

· 어두움은 실재하는 것일까, 아니면 빛이 없는 정도 즉, 빛의 부재absence를 나타내는 것일까?

부재 반대의 개념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음.

예) 많다와 적다

어떤 것의 부재로 인한 반대가 아니라 실재하는 반대의 개념

예) 남자와 여자

- 남자의 부재 상태가 여자는 아님. 모두 실재하는 것.

· '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것'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큰 차이가 있음.

·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빛을 창조했다면, 의도를 가지고 어두움을 창조한 것일까?

· 하나님의 의도는 오로지 빛의 창조였지만, 빛의 부재 상태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(시간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).

**· 선과 악은 부재 반대인가, 실재 반대인가?**

다의성equivocation의 오류(하나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오류)

"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차이가 난다. 그러면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게 아니다. 그러므로 법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"

· 위 논증은 그럴듯해 보이지만, '평등'이라는 용어를 전제와 결론에서 아주 다른 의미로 사용

**선과 악이 실재 반대임을 주장하는 다음의 논증**

"배고픈 어떤 사람에게 10,000원을 주는 것은 선하다. 배고픈 어떤 사람에게 100원을 주는 것도 선하다. 배고픈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. 배고픈 사람의 돈을 빼앗는 것은 악하다."

· 선은 배고픈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무엇

어떤 상황에서 "배고픈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"이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

· 만약 악이 실재 반대라면 우주의 두 힘을 설명하는 이원론을 받아들이는 것.

· 악이 실재 반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,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는가? 라는 질문에 '그렇다'라고 대답해야 할 것

· 하지만, 악이 선의 부재 상태라면 하나님께서는 '악'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'선'만을 창조한 것이며 무언가가 잘못 되어서 선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곳 우주에 선의 부재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것

**[] 지옥**

"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?"

지옥은 천국의 부재상태

·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 상태에는 전혀 필요치 않았던 것이지만, 이 우주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의미

·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절대선이 '좋았더라'고 한 상태

· 그런데 선의 부재상태를 인간이 가져와 버린 것

·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님.

·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상태, 절대 선, 절대 사랑이신 그 분과의 부재 상태를 지옥이라 부르는 것

**지옥은 허튼 소리가 아님. 지옥은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실재임**

"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?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?"

법칙, 구속

· 규칙과 법칙

· 법칙의 실재

· 중력의 법칙,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, 에너지 보존 법칙

# [] 법칙Law과 규칙Rule.

·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규칙rule들

- 법, 사회법, 사규, 개인 원칙등

· 규칙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이므로 문화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음.

예)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'좌측통행'을 가르쳤음.

**반면에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법칙law들이 있음.**

· 대표적인 법칙에는 만유인력의 법칙law of universal gravity이 있음.

· 이 법칙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얻어진 것이 아님

·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아님.

· 우주에 존재하는 것을 사람들이 '발견'한 것

· 중력의 법칙은 태어난 사람에게 작용했었고, 현재의 사람에도 작용하고 있으며,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게도 작용할 것임

· 왜 우리는 힘들게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까?

· 왜 힘들게 공부해야만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?

· 악기를 잘 연주하기 위해서 왜 연습해야 할까?

· 연습한 후에 연습을 소홀히하면 왜 실력이 줄어들까?

**반대의 세상**

·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,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 성적을 점점 더 잘 받는 세상, 연습을 소홀히 할 수록 악기를 더 잘 연주할 수 있는 세상!

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

· "무질서도 증가의 법칙"

· 법칙의 결과 🡪 "게으름"

이 우주에 "엔트로피 감소의 법칙" 이 작용하고 있다면!

· 시간이 지날수록,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점점 더 의미가 있어지고 행복해 지는 세상!

·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도, 그 법칙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음.

·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거스르려고 노력은 하지만 벗어날 수는 없음.

·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원죄, 로마서 7장의 "죄의 법"은 이렇게 물리법칙으로 "변환"된 형태로 우리 우주에 존재

· 중력의 법칙이 실제 이듯이 "죄의 법칙"은 실제

·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 없음.

·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"죄의 법"을 피할 방법은 없음.

**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"절대 선"**

· 우리가 그 분께 "의롭다"는 인정을 받으려면 "죄의 법"의 영향에 있으면 안됨.

· 금방 태어난 아기도 중력의 법칙의 영향을 받듯이 "죄의 법"의 영향을 받음.

· 그러므로 이 우주에 태어나 살았던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음.

·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"하나님과 함께"있을 수 없음.

**죄의 법을 거슬러 싸우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음**

·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"니가 얼마나 거슬러 싸웠느냐?"를 보시는게 아니라, 니가 그 법칙의 영향을 벗어났느냐를 보심.

(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)

·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,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함.

**[]자연법Law of Nature**

cited by C.S Lewis Mere Christianity

· 인간은 매 순간 여러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, 그 중에서 한 가지 법칙만큼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.

· 사람들이 이 법칙을 '자연법'이라고 부른 것은, 굳이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.

**문명이나 시대에 따라 도덕도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, 인간 누구나 알고 있는 '자연법'이라는 것은 그리 견고한 개념이 못 된다?**

· 어떤 사람들을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-가족들한테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, 같은 나라 동포들이나 모든 인간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-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름.

· 그러나 어쨌든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늘 동의.

·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살아야 하는지, 네 명의 아내와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름.

·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모든 여자를 다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늘 동의.

**도덕률이란 사실상 인간의 집단 본능에 불과한 것으로서, 다른 본능들처럼 발전해 온 것이 아닌가?**

· 남을 돕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와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다른 일.

*위험한 지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.*

· 하나는 당장 달려가 도우려는 욕구(이것은 집단 본능에서 나온 것).

· 다른 하나는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(이것은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온 것). · 그러나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충동 외에 "도망치려는 충동을 누르고 도우려는 충동을 북돋으라"고 말하는 제3의 무언가를 내면에서 발견.

그 두 본능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며 그 가운데 어느 본능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는 이것이 곧 그 두 본능 가운데 하나일 수는 없음.

· 도덕률이 본능 중 하나라면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옳은 행동 규범에 일치하는 충동 하나를 우리의 내면에서 짚어 낼 수 있어야 함.

· 그러나 그런 충동은 없음. 우리는 어떤 본능에 대해서든지 때로는 억누르며 때로는 북돋우라는 명령을 도덕률로부터 받음.

**도덕률이란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된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?**

· 사막에서 혼자 자란 아이는 구구단을 모를 것임.

· 그렇다고 해서 구구단이 단지 인간의 관습, 즉 인간이 스스로 구성해 낸 것으로서 인간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달리 만들 수도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음.

**결론: '바른 행동'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차이 때문에 종종 자연적인 '행동 법칙'이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되긴 하지만, 사실은 이런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'행동 법칙'이 존재한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**

**[]이 법칙의 실재성**

'바른 행동의 법칙' 은 '인간이 실제로 늘 하는 일'을 의미하지 않음. 이미 말했듯이 많은 인간들이 이 법칙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으며, 단 한 명의 인간도 완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

**한 종류의 실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.**

· 인간의 행위라는 일상적 사실들 너머에는 아주 명백하게 실재하는 무언가-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실재적 법칙-가 존재한다는 사실

**[]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**

*· 유물론적 관점*

*· 유신론적 관점*

· '인간 본성의 법칙' 내지는 '옳고 그름의 법칙'은 인간 행위라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임.

· 인간의 경우에는 현실의 사실들 외에 어떤 것, 즉 우리가 창안해 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제적 법칙이 존재하는 것.

· 우리는 우주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인지,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든 힘이 배후에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음.

· 만일 그런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, 그 힘은 관찰 가능한 사실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실들을 만들어 낸 실재이므로 단순한 사실 관찰을 통해서는 찾아 낼 수가 없음.

· 그런데 그 사실 너머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,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(우리의 내부에서 느끼는 자연법)

**[]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.**

·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,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.

· 반면에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셈이고 다음 날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아질 기미 또한 전혀 없으므로,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.

***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***

·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,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음.

· 여러분은 먼저 도덕률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며, 그 법칙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고, 여러분이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. cited by C.S Lewis Mere Christianity

# [] 죄의 법칙law을 벗어 나는 방법.

노아가 어릴 때 색color이라는 추상 명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질문.

"아빠 네모는 무슨 색이야?"

· 대답 불가능한 질문.

· 이러한 불가능을 본질적인 불가능

예) "빛을 비추지만 그림자는 없게"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불가능의 범주에 속하는 것(부재 반대를 없애 달라는 주장).

**하나님께 본질적인 불가능이 있음**

1) 절대 선

2) 절대 사랑

· 하나는 죄의 법칙 아래에 있는 피조물을 대가 없이 용서하는 것

· 다른 하나는 나(우리 인류)를 사랑하지 않는 것

이것이 하나님이 처한 상황

· 죄의 법칙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를 심판해야 하지만, 우리를 너무 사랑하므로 심판하지 못하는 상황.

지옥은 허튼 소리가 아님.

· 지옥의 고통을 얘기하는 순간 그곳은 더이상 지옥이 아님.

· 우리가 받을 심판은 영원한 형벌, 지옥.

**누군가가 죄의 댓가, 즉 사망을 지불하면 우리는 죄의 법칙으로부터 해방.**

· 하지만 사람은 모두 죄인이므로 사람 중에는 해결자가 없음.

·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으시면 됨.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.

·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

**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, 그리고 죽는 것**

🡪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